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로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상권 19:9.11-13	제2독서	로마서 9:1-5	복음	마태오 14:22-33
--------	------	------------------	------	-----------	----	--------------

◎말씀 < 용기를 내어라 >

‘하느님 체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느님 체험이라 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경지 못할 어떤 기이한 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지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등장했던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독서에 등장합니다. 바알 예언자를 사백 오십명과 대결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증언했던 엘리야도 바위를 활켜는 거센 바람이나,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불타오르는 불 속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말씀’에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 역시 밤새 불어오는 거센 맞바람과 배가 뒤집힐 듯 일렁이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어 조용히 건네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밤새 고요히 기도하시다가, 밤새 바람과 파도에 짓눌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고요히 먼저 다가갑니다. 마치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과 같은 따스함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파에 시달리며 주님마저도 잊어버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마라.” 거룩한 변모를 목격한 그 순간에도 나오지 않았던 고백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고요하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잊고 있는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사나운 물 위를 걸어오시듯,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체험하고 또 용기를 길러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 친히 먼저 다가와 말씀을 건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중에, 새벽 어스름의 따스한 빛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밤새 폭풍과 파도 속에서 고생하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빛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온갖 어두움과 어려움을 물 위를 걸어오시듯 말씀을 건네십니다.

매순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버려두시냐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8월 11일(화)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3,780.00 \$ 768.00
8월 12일(수)	연중 제19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260.00 \$ 187.00
8월 13일(목)	연중 제19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성 물 방	\$ 143.00 \$ 0.00
8월 14일(금)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기타수입	\$ 1,300.00
8월 15일(토)	성모 승천 대축일 낮미사	오전 10시	합 계	\$ 6,438.00
8월 16일(일)	연중 제20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2명 성인: 61명
교무금 봉헌자	최원숙(7-12월) 김옥륜(4-12월) 장석자(7-10월) 이상인(8-9월) 장현철(7-9월) 원승남(3-9월) 김귀태, 박병수(7-8월) 윤영자(4-8월) 전우성, 전정옥(7월) 김주동, 박원상, 이재덕, 성영진, 남필레, 김상돈, 안강순, 전기례, 지복원, 김중순(8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포스트 코로나 신앙

인류는 역사 속에서 재난과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흑사병, 산업혁명, 세계대전, 민주화운동,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세례자 수와 새 사제 수, 신설 본당과 건축물 설립을 예로 들어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신앙생활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상적인 미사 참례에 대한 간절함은 늘었지만, 막상 주일미사에 대한 의무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연중 제17주일 복음(마태 13,44-52)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봅시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 13,44-46) 이 구절을 마치 유사종교에서 증용하듯 집안 살림을 다 처분하여 자신들에게 헌납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대한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값진 것을 발견함→가진 것을 다 팔아→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함’의 구조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 ‘값진 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 행복, 성공, 출세, 재산만이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값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올바르게 찾게 해주는 것,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참다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신앙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내용을 현시대에 맞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은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존 삶의 방식과 인식의 틀이 변화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에 맞추어 신앙생활 또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다시 말해 각자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복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신앙’이 아닐까 성찰해봅시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값진 것’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향자.글라라의 영원한 안식	안나회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이봉기.요아킴의 영혼	임채봉.안드레아 임정남.실비아	생	박수옥.글라라 가정	박수옥.글라라
생	(생신)박화자.율리안나	임채봉.안드레아 임정남.실비아	생	감사미사	윤영자.마리아
			생	김상돈.도미니코 부제님	익명

간 장 종 지	◎당신 계신 곳◎	
	내가 찾던 곳에 당신은 있지 않았다.	장엄하고 세련되고 이름 난 곳을 피해
	어눌한 감사의 마음속에만 당신은 있었다.	힘들었던 용서의 가슴 속에만 당신은 있었다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실외미사로 인한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성당서편 정자)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2. 실외미사 준비 및 안내
실외미사 집전과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3.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분은
우편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4. 첫영성체 대상자 첫고해
일시;16일(일)오전9시30분.고해실
5. 첫영성체(세례포함)
일시;16일(일)오전10시.축하해주세요.
첫영성체:곽아인.문서인.정준영.허은주.
허준희.유니아.윤준식
세례:윤준식.윤현식
교리 수고해주신 장선영선생님께 감사드려요
6.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안내
일시;8월15일(토)오전10시.실외미사
7. 사랑의 쌀 나눔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이하여 사회복지부에서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요셉회.안나회 회원들에게 전달합니다.
미사에 참석해주세요.

8. 분당부제님(김상돈) 영명축일:8일(토)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하세요.
9. 놀이기구 및 바닥재 교체
신자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10. 교구2차헌금
일시:9일(일)오전10시
목적:Church in Latin America
11. 신자 주소록
신자 주소록을 새로 마련하고자합니다.
새 주소록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사오니 누락되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분은 구역장에게 연락해주세요.(8월16일까지)
12.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윤영자(\$1,000), 김승제(\$100)
13.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전례봉사	연중제19주일(8월9일)	연중제20주일(8월16일)	연중제20주일(8월23일)	연중제22주일(8월30일)
해설				
복사	김규철.레오	최준우.루카	최진호.다니엘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